

라고나브 선교 소식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히 12:2)

- 첫 안식년을 마치면서...

작년 건잡을 수 없도록 악화되는 아이티 치안상황으로 한국에 몇 달 머물면서 첫 안식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가정상담학교 코스를 수료하였고 저는 오랫동안 그냥 쉬는 쉼을 가졌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는 숲길을 따라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가듯이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묵상하며 아픈 몸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좌충우돌했던 1기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많은 부끄러움과 아쉬움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 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가득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선교사역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어 아이티 2기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가족 이야기

아내는 선교 현지에서 상담사역을 준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오래동안 알고 지내시던 마크
간사님과 크리스틴 간사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산티아고에 오셔서
하늘나라와 우리 가정이란 주제로 4일간 가족 세미나를 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큰 딸 소연이는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서 불교권과 모슬렘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육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대견스럽습니다. 조금씩 현지 학부모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곳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학교가 선교에 얼마나
중요하고 효율적인 장소인지 깨닫습니다

둘째 딸 시온이는 이번 5월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서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하나님의 ATM machine 이 되는 것이 자기
기도 제목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시온이를 통해 선한
곳으로 풍성히 흘러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래 만에 도미니카에서
모여 family time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은 크고 작은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안타까움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동안 부모님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래서 부모님들의 노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티, 라고나브 소식들....

갈수록 아이티 치안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갱단들간의 계속되는 납치와 총격전과 살인, 폭력으로 거의 무정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난민처럼 이 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이웃나라에서 노예와 같은 힘든 생활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참한 삶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저희들의 고통이고 눈물입니다

라고나브 섬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수년 간 고립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는 식량공급이 막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으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싱글맘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며 이들을 돕는 것이 큰 사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그동안 후원해 주던 학생들 10명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 이들의 진로를 위해 다른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기 사역 방향에 대해서

1.아이티 대학생 공동체 사역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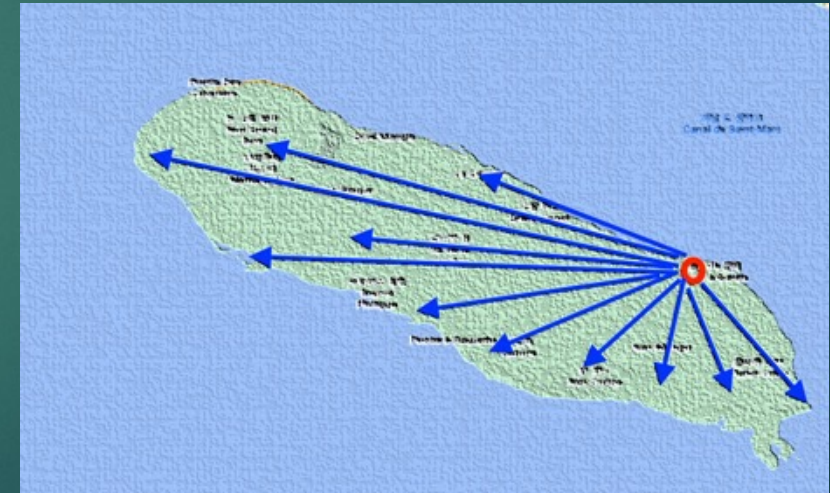
2기 주력 사역으로 그동안 라고나브에서 훈련 받은 청소년들 중에 몇몇을 선발해 도미니카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어 목사, 의사 엔지니어, 농업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에 공부하게 하고 4년간 대학 공동체 생활을 통해 집중적인 제자 훈련 트랙을 통해 참된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후에 라고나브와 아이티 등에 다시 파송해서 귀중한 선교 사역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 제자 훈련사역--

2. LTM(local teacher missionary project)-현지 교사 선교사 양성

학교가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선교 필드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졸업하고 라고나브 섬에 남게되는 나머지 학생들은 현지 사범학교에 교사 과정을 거치고 저희 센터에서 여러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해서 라고나브 각 산마을 학교에 파송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양질의 자질을 갖춘 교사가 될 것이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공부 반을 만들게 하고 이를 통해 라고나브 섬 주요 마을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사 선교사가 되도록 후원할 계획입니다



--현지 교사 선교사 파송--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카 내 아이티인들의 비참한 삶을 바라볼 때 저희들에게 또 다른 슬픔이며 아픔이며 또한 커다란 마음의 짐들을 집니다. 본국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 왔지만 거듭되는 혼란과 위협으로 할 수 없이 도미니카로 피해 왔지만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폭력과 압제와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과 가난의 삶이 그들이 운명 아닌 운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좋겠습니다”(롬 9:2,3)

코로나와 전쟁, 여러 경제 위기로 인해 선교가 많이 위축되고 많은 교회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처럼 저희들이 잃어 버린 자들에 대해 이 절절한 마음을 품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산지를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동역자들과 교회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 제목들

1. 어려운 아이티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2. 도미니카 내 아이티 대학생 공동체 사역을 위한 사역센터가 잘 구해지고 대학생들을 섬기고 훈련시킬 팀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3. 라고나브 섬에 남아 있는 학생들과 현지 스텝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되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들을 통해 자발적인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4. 도미니카 대학으로 유학할 학생들의 비자와 후원자 연결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라고나브 섬에 크리스천 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5. 아이티 치안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아이티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계좌 :

한국--농협 355-0048-9984-73 (사단법인 선한청지기선교회)
국민은행 493602-01-051991(김성은)

미국--Bank name : Bank of America, Account name: Oak tree ministry a NJ nonprofit corp
Account number : 381056423460, Routing Numbers : 021200339 (paper & electronic), 026009593(wires)
Swift code - BOFAUS3N, zelle : oaktreeministryh2020@gmail.com

아마폴라

고속도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맹렬히 질주하는 차들 사이로

과일 몇개 든 행상 바구니를 이고

칭얼대는 젓먹이 애기를 업고

주저 주저 길을 건너던

비쩍 마른 아이티 여자가 고물차에 치였다

허공에 솟구쳐

하얀 구름에 닿은 듯

솜털처럼 날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롭다

늘어진 엄마의 검은 젓통이 보이고

배꼽는 동생들 얼굴이 스쳐 지나고

건고한 아스팔트 위로

첼퍼덕 파파야가 깨어져 튀겨져
그 위로 흩어지는 새빨간 꽃잎들, 아마폴라 가지들...
“불법체류자” 아무렇게 갈겨 쓰고
경찰은 그냥 구둣발로 시체를 도랑으로 밀어 치운다
뚱뚱한 운전사는 다시 검은 아스팔트 위로 질주하고
다시 맥주를 마시면서
다시 라디오를 켜고 노래를 따라 흥얼거린다
amapola, amapola
Cómo puedes tú vivir tan sola
아마폴라 아마폴라
그것은
내 아이 복통을 위해 꺾어 온 것이라네

-- 어느 무명의 주검 앞에서

